

#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항목 전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the Division “Korean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  
Orient Traditional Music” in the 5th Edition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강 순 애 (Kang, Soon-Ae)\*

◁ 목 차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 론</li> <li>2. 한국음악의 발전과 음악 분야의 분류체계</li> <li>3. 도서관계에서의 한국음악 분류체계</li> <li>4.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 분류의 구성과 개정부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 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li> <li>6. 결 론 &lt;참고문헌&gt;</li> </ol>
--	--

< 초 록 >

이 논문은 KDC 제5판에서 개정된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항목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음악이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발전된 과정과 국악 분야에서 시도된 분류체계를 살펴보고, 도서관계의 한국음악 분류는 표준분류법인 KDC, Dewey 十進分類法: 東洋關係細分展開表와 한국음악전문분류법인 국립문화재단연구소의 한국전통음악자료분류법, KBS 음악정보실분류표, 국립국악원 전통예술아카이브 분류체계를 비교 평가하였다. KDC 제5판에서 전개된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항목들을 국악이론, 한국악곡, 한국악기, 동양 전통음악의 영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KDC 제5판에서 전개된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문제점은 정악의 세부분류 수정 전개, 불교음악의 주기 삭제 및 세분 전개, 무속음악의 주기 삭제 및 세분 전개, 기독교음악의 추가 전개, 동양전통음악의 세분 전개로 나누어 살펴보고, KDC 제6판 전개 시 개선할 항목들의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要語: KDC 제5판, 한국음악, 국악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1년 9월 1일 최초심사일: 2011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2011년 9월 15일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articles of “Korean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 Oriental Traditional Music” as revised in the 5th Edition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KDC), and suggests ideas for their improvement. It also examines the development of Korean music from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to the present, while looking into the classification system attempted in the field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systems of Korean music in Korean libraries: the KDC, which the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the classific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of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which is the specialized classification system for Korean music ; the KBS musical data classified table ; an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National Gug-ak Center’s traditional arts archive. The articles of the KDC 5<sup>th</sup> Edition’s “Korean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 Oriental Traditional Music” are also examined in detail, being divided into the domains of theor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Korean musical composition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Oriental traditional music. The problems in “Korean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 Oriental Traditional Music” in the 5th edition of the KDC are categorized and discussed in the following: the subdivision and revision of Chongak, the notes deletion and subdivision of Buddhist music, the notes deletion and subdivision of shamanistic music, the addition of Christian music, and the subdivision of traditional Oriental music. This paper provides ideas for improvements for the 6th Edition of the KDC.

Key words: 5th Edition of the KDC, Korean Traditional Music, Korean Music

## 1. 서론

한 나라 도서관 발전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분류표이다. 분류표는 한 도서관에서 도서를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분류표의 확장과 개정은 도서관의 발전사와 그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다. 한국십진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KDC라 칭함)은 제5판이 2009년 1월에 발행되었으니 2년 6개월이 지난 셈이다. 이제는 KDC 제5판을 사용한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에 관한 제언들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인데도 실체는 그렇지 않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 서지센터를 만들고 외부에서 이루어지던 분류 목록 업무를 내부로 환원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 도서관 현장에서 밖으로 밀려나 있던 분류 업무를 점차 도서관 내부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러한 노력의 바탕 위에서 KDC 제5판 분류표의 적극적 사용과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할 수 있다.

KDC 제5판의 개정은 분류 목록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던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몇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제1판부터 제4판의 분류표에 비교하면 몇 가지 의미에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KDC 제5판에서는 기존의 한자 본위의 분류표를 본표와 상관색인을 포함 전문을 한글 본위의 분류표로 바꾸었다. 각 영역별로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보완하는 데 주력하였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총류의 004와 005에 전산공학 분야(566)를 통합하였고, 한국학 관련 분야 항목 중 기존에 사부분류체계에 의해 전개되었던 부분을 전 주제에 걸쳐 수정 보완하고 재정리하였다. 사회과학 분야는 특히 경영(325), 사회학(330), 행정(350), 법학(360), 교육학(370) 분야를 대폭 개정하였다. 순수과학의 명칭을 자연과학으로의 변경하고 용어를 새롭게 다듬는 데 주력하였다. 자연·기술과학 분야는 기술과학의 표준구분인 501-509를 공학 및 공학일반의 표준구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분야를 재정리하고 용어를 현대화하였다. 예술류 중에서는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이 재 전개되었다. 언어류에서는 2개 국어사전의 분류방식이 변경되었고, 문학류의 항목 조정이 있었다. 역사류는 지역구분표를 세분화하고 현 북한 지명이 적용되었다. 중국, 일본 고유명사의 원음 색인이 추가되었다.

KDC 제5판의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은 KDC 제1판부터 4판까지 국악으로 사용되던 개념이 바뀌었고 분류 체계를 재정비하였는데, KDC 제4판이 DDC 전개 방식에 기초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악 분류체계와 맞지 않는 점, 동양 제국의 전통음악을 분류항목으로 배정하지 않은 점, 기악의 전개가 전통악기 분류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국음악의 십진분류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논문 2편과 보고서 1편이 있다. 선행논문 중 이보형(1975)은 도서관과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한국음악의 연주 장소, 연주 계기, 연주자 신분 등에 의한 분류법이나 혹은 악기 편성 및 장르에 의한 분류법에 의한 십진분류가 가능함을 제시하였고,<sup>1)</sup> 한경신(1998)은 한국음악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융통성 있게 수용하여 학문적 전문지식에 근거한 보편성을 갖는 한국분류표를 제시하였다.<sup>2)</sup> 하지만 이 시안은 한국음악 분야의 발전을 충분히 수용하여 체계화된 것이 아니어서 KDC 제5판에 적용되지 못하였다. 국립국악원의 보고서(2005)는 전통예술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 설계 및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한국전통음악의 분류체계와 KDC에 조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병행되어 KDC 제5판의 국악 분야의 확장에 도움이 되었다.<sup>3)</sup> 하지만 KDC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에 여전히 수정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DC 제5판의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의 발전과 분류체계, 도서관계의 한국음악 분류체계,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구성과 개정부분, 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현재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 분류

1) 李輔亨, “韓國傳統音樂資料의 十進分類方法論,” 『문화재』 9(1975), 41-49.

2) 한경신, “한국음악자료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2호(1998), 6-32.

3) 국립국악원, 『전통예술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 설계 및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국립국악원, 2008), 1-110.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항목 전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개의 특성을 알아보고, 나아가 개정된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미래의 KDC 제6판을 위한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 개선방안  
은 어떤 분야를 유념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한국음악의 발전과 음악 분야의 분류체계

### 2.1 한국음악의 발전

한국음악은 한겨레의 형성과 더불어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음악적  
산물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향악(鄕樂)이라는 용어가 외래음악(당  
악·아악)의 대칭어로 사용되었다.

삼국시대는 향악이 형성되고 발전되었던 시기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의 체제  
를 갖춘 삼국이 각기 기원전부터 전승한 향토색 짙은 토속음악을 바탕으로 삼아  
외래음악을 자주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켰다.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 가장 일찍  
중국 북조를 거쳐 들어온 외래악기를 수용하면서 향악의 기반을 다졌고, 백제는  
중국 남조를 통해서 외래악기를 수용함으로써 고구려나 신라와 다른 색깔의 향악  
을 발전시켰다. 신라는 두 나라와 대조적으로 한반도 동남쪽의 각 지방음악에  
뿌리를 둔 향악을 발전시켰다.<sup>4)</sup>

고려시대(935-1392)는 통일신라의 삼현(三絃: 거문고, 가야금, 향비파)·삼죽  
(三竹: 대금, 중금, 소금)을 전승하여 발전시킨 향악, 통일신라시대 당악의 터전  
위에 송나라의 교방악(敎坊樂: 송나라 궁중 연례악)을 수용하여 발전시킨 당악,  
그리고 12세기 고려 조정에 소개된 대성아악(大晟雅樂: 송(宋)의 휘종(徽宗)이  
제정한 중국의 아악으로 주로 유교의식과 제사 때 연주된 음악)의 세 갈래가  
주류를 형성하였고, 고려의 귀족사회에서 성장한 행진음악 계통의 고취악 및 백  
희 가무 등의 잡기와 기악(伎樂)이라는 새로운 갈래의 음악을 포함한 공연예술이

4) 宋芳松, 『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26.

작은 갈래를 형성하였다.<sup>5)</sup>

조선시대의 음악은 임진왜란(1592)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전기(1392-1592)는 유교적 음악관에 의한 아악의 정비시대로 고려의 향악·당악·아악·고취악 등을 전승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음악을 정비하고 발전시켰다. 조선 왕조를 위한 악가(樂歌)가 제정되었고, 세종조에는 율관과 악기 제작이 이루어졌으며, 박연을 중심으로 아악이 정비되었다. 조희악과 회례아악은 임금이 문무백관을 정기적으로 모아서 갖는 조희나 회례의식의 절차에 따라서 연주된 음악이며, 제향아악은 종묘·사직·풍운너우·선농·선장·우사·문선왕묘의 제사의식에 따라 연주된 음악이다. 아악제정이 본격화됨으로써 아악이 좌방의 위치를 차지하였고, 향악과 당악은 우방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 최고의 악보인 『세종실록악보』가 편찬되었고, 조선 전기의 대표적 악서인 『악학궤범』이 편찬되었다. 장간보·오음약보·합자보 등의 새 기보법이 창제되었다.<sup>6)</sup>

조선조 후기는 임진왜란(1592) 이후부터 갑오경장(1894)까지이다. 이 시기는 민속악의 새 양상시대로 궁중음악이 하향세가 되고 민간의 음악문화가 성장하고 발전한 시기였다. 중인 출신의 부유한 농공상인과 아전들에 의해 민간음악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가객과 풍류객들은 시조·가곡·영산회상 등의 민간풍류의 발전에 공헌하였고, 학식과 교양을 갖추었던 율객들은 가곡집과 거문고악보를 후대에 남겨놓았으며, 비가비 출신의 양반광대들은 판소리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sup>7)</sup>

갑오경장(1894)부터 해방(1945) 이전까지의 근대는 전통음악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서양음악을 수용하던 시대였다. 서양음악의 수용으로 찬송가가 확산되고 양악대가 설립되었다. 전통음악은 1907년부터 사용된 ‘국악’이라는 이름 아래 축소되어 일반시민에게 제한된 국악교육을 통해 명맥이 유지되었다. 이 시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서양식 창작 개념을 받아들여 시작한 창작국악이다. 창작국악은 국악기를 이용한 다양한 작곡방법을 두루 시도하며 작곡가 개인별로 다양한 음악 세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sup>8)</sup>

5) 宋芳松, 『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140.

6) 손태룡, 『한국음악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2007), 346-369.

7) 위의 책, 370-371.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항목 전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해방 이후는 한국음악의 방향모색시대로 한국음악은 ‘국악’이라는 용어가 더욱 일반화되어 사용되었다. 국악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나라의 고유 음악 또는 고전 음악을 통틀어 일컫는다. 국악은 우리나라라는 지역을 한정하되, 고유 혹은 고전에 담겨있는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시기는 또한 ‘한국국악학회’의 설립과 이에 따른 국악의 학문적 활동, 전문음악교육기관인 음악대학 내의 국악과 설립 및 이에 따른 교육, 그리고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전문국악연주기관들의 출현 등 사회와 학계의 관심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sup>9)</sup>

최근에는 음악의 발전에 따라 국악의 형태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 국악기와 함께 하는 재즈 연주, 국악기로 연주하는 서양 전통음악, 서양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국악기 연주 등 가락이나 연주 형태가 전통을 벗어나 퓨전 연주가 이루어지는 현대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악=고유 음악’이라는 등식을 깨고 있으며 국악이 전통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은 약화되고 있다.<sup>10)</sup>

1957년에는 이혜구 교수가 그의 박사학위 논문집에서 ‘韓國音樂’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중앙대학교의 국악과과 ‘한국음악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각 문헌과 논문에서 ‘한국음악’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게 되었다.<sup>11)</sup>

## 2.2 한국음악 분야의 분류 체계

한국음악의 분류는 조선조의 대표적인 악서인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의하면, 당시 궁중음악은 아악, 당악, 향악의 3분법으로 분류되었고, 한국악기도 악곡 연주에 사용되는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로 나누었다.<sup>12)</sup>

해방 이후에는 시대별로 학자들이 다양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는데, 1950년대, 1970년대, 1980년대로 나누어 분류체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8) 변계원, “20C 초 한국 전통음악계의 혁신 -창작국악의 발생과정 연구,” 『예술논집』 9(2009), 162.
  - 9) 한경신, “한국음악자료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2호(1998), 9.
  - 10) 양종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악의 변천과 방향,” 『음악교육공학』 11(2010), 74-75.
  - 11) 한경신, “한국음악자료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2호(1998), 20.
  - 12) 오용록, “국악곡과 국악기의 분류,” 『국악교육』 7(1989), 62-64.

첫째, 1950년대에 이혜구 교수(1957)는 한국음악을 아악, 취타, 실내악-영산회상, 무용곡-삼현육각, 산조, 가곡, 가사, 시조, 창극조, 무용가(입창), 통속가(민요) 등의 종류별로 나열하였다. 이는 한국음악을 종류별로 시도한 것에 불과하였다.

둘째, 1970년대에는 유신(1970), 장사훈·한만영(1975), 성경린(1976), 이창배(1976) 등이 분류를 시도하였다. 유신(1970)은 국악을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누고, 정악을 다시 궁정과 민간으로 나누어 궁정은 제례악, 연례악, 행악으로 나누고, 민간은 기악, 성악으로 나누었으며 민속악은 무악, 불교악, 대중악으로 나누었다. 장사훈·한만영(1975)은 아악, 범패, 무악, 산조, 판소리, 잡가, 민요, 농악으로 나누고, 아악은 다시 제례악, 관현합주, 관악, 기악으로 나누었다. 성경린(1976)은 아악과 민속악으로 나누고, 아악은 다시 제례악, 연례악, 군악으로 나누고, 민속악은 성악과 기악으로 나누었으며, 성악에는 판소리, 단가, 잡가, 입창, 민요, 무가, 범패를, 기악에는 산조, 시나위, 무악, 농악,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창배(1976)는 일차적으로 궁정음악과 민간음악으로 나누고, 궁정음악과 민간음악은 각각 성악과 기악으로 이차 분류를 하였다. 궁정음악의 성악에는 악장, 기악에는 제례악, 연례악, 군악을 넣었고, 민간음악의 성악에는 정악, 산조, 농악, 무악을, 기악에는 시조, 가사, 가곡, 창극조, 잡가, 입창, 민요, 범패를 배치하였다.

이 시기의 한국음악 분류는 일차 분류는 장르로 구분하여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누거나, 아악과 민속악으로 나누었고, 사회계층에 기준을 두어 궁정음악과 민간음악으로 나누는 이분적 분류방식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차 분류는 음악의 기능에 따라 아악을 제례악, 연례악, 군악으로 나누거나 연주 형태에 따라 성악과 기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셋째, 1980년대에는 서홍범(1983), 장사훈(1988)이 분류를 시도하였다. 서홍범(1983)은 아악, 의식음악, 가악, 민속악으로 장르별 일차 분류를 하고, 아악은 음악의 계통에 따라 아악, 당악, 향악을 넣었고, 의식음악에는 제사음악을 포함하여, 범패와 무악을 넣었다. 가악에는 가곡, 가사, 시조를, 민속악에는 판소리, 산조, 잡가, 민요, 농악을 넣었다. 장사훈(1988)은 아악, 의식음악, 민속악으로 장르별 일차 분류를 하고, 아악은 연주 형태에 따라 관현합주, 관악합주, 취타, 기악으로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항목 전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나누고, 의식음악에는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경모궁제악, 범패, 무악을 넣었으며, 민속악에는 판소리, 시나위, 산조, 잡가, 민요, 농악을 넣었다.

이 시기의 한국음악 분류는 일차 분류는 장르에 따라 삼분법 또는 사분법 분류를 하였는데, 일차 분류의 중요 영역에 의식음악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의식음악(종교음악)은 문묘제례악을 공자의 제사음악으로 보아 불교음악인 범패와 무속음악인 무악을 같은 성격으로 보아 묶은 것이다. 하지만, 문묘제례악은 의식음악이기에 아악에 속하므로 의식음악에 넣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3. 도서관계에서의 한국음악 분류체계

도서관계에서 한국 자료를 분류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분류체계는 크게 두 가지 가릴 수 있다. 하나는 표준분류법인 KDC와 Dewey 十進分類法: 東洋關係細分展開表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음악전문분류법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국전통음악자료분류법’, KBS 음악정보실분류표, 국립국악원 전통예술아카이브 분류체계이다. 이에 대해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 표준분류법

##### 3.1.1 KDC

KDC 제1판(1964)에서는 ‘679 國樂’ 아래에 679.01-09 표준구분, 679.1 國樂 理論 및 方法, 679.3 聲樂, 679.4 唱劇, 679.5 諸奏樂, 679.7 絃樂器, 679.8 吹奏樂器, 679.89 打樂器로 구분하였다. 한국음악을 국악이라 하고 악곡은 성악, 창극, 제주악으로 나누었으며, 악기는 현악기, 취주악기, 타악기로 나누어 분류하도록 하였다.

KDC 제1판(1964)부터 제2판(1968), 제3판(1980), 제4판(1996)까지 국악 분야의 변화는 용어 변경, 분류항목의 이치 및 신설, 용어 변경과 주기 신설된 것과 주기

만 신설된 것 등의 미미한 변화가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 변경은 '679.07 研究 및 指導'(1판-3판)가 '指導法 및 研究法'(4판)으로, '679.41 西道歌謠'(1판-3판)가 '西道唱'(4판), '679.43 南道歌謠'(1판-3판)가 '南道唱(4판)'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분류항목의 이치 및 신설은 '679.09 韓國音樂史'(1판-3판)가 670.911(4판)로 이동되었고, 기존의 분류기호인 679.09(4판)는 '國樂史'로 변경되었다.

셋째, 용어 변경 및 주기 신설이 함께 이루어진 것과 주기만 신설된 것이 있다. 용어 변경 및 주기 신설이 함께 된 것은 '679.35 風謠(民謠)'(1판-3판)가 4판에서는 '679.35 民謠, 風謠'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京畿民謠, 南道民謠, 西道民謠 등을 포함한다. 民謠(文學)→811.4"의 주기가 신설되었다. 주기만 신설된 것은 '679.4 唱劇'(1판-3판)은 4판에서 '679.4 唱劇' 아래에 "관소리를 포함한다. 例: 春香歌, 沈淸歌, 興夫歌"의 주기가 신설되었고, '679.59 기타 俗樂, 鄉樂'(1판-3판)은 4판에서 '679.59 기타 俗樂, 鄉樂' 아래에 "散調, 다스림, 農樂, 시나위, 巫樂 등을 포함한다."의 주기가 신설되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표 1>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KDC 제1판부터 제4판까지 679 국악 분야의 변화

679.07 研究 및 指導	679.07 研究 및 指導	679.07 研究 및 指導	679.07 指導法 및 研究法	용어 변경
679.09 韓國音樂史	679.09 韓國音樂史	679.09 韓國音樂史	679.09 國樂史 韓國音樂史→670.911	분류항목 이치 및 신설
679.35 風謠(民謠)	679.35 風謠(民謠)	679.35 風謠(民謠)	679.35 民謠, 風謠	용어 변경 및 주기 신설
			京畿民謠, 南道民謠, 西道民謠 등을 포함한다. 民謠(文學)→811.4	
679.4 唱劇	679.4 唱劇	679.4 唱劇	679.4 唱劇 관소리를 포함한다. 例: 春香歌, 沈淸歌, 興夫歌	주기 변경
679.41 西道歌謠 679.43 南道歌謠 679.54 短簫, 饒樂	679.41 西道歌謠 679.43 南道歌謠 679.54 短簫, 饒樂	679.41 西道歌謠 679.43 南道歌謠 679.54 短簫, 饒樂	679.41 西道唱 679.43 南道唱 679.54 短簫, 饒樂 短簫→679.85	용어 변경 용어 변경 주기 변경
679.59 기타 俗樂, 鄉樂	679.59 기타 俗樂, 鄉樂	679.59 기타 俗樂, 鄉樂	679.59 기타 俗樂, 鄉樂 散調, 다스림, 農樂, 시나위, 巫樂 등을 포함한다.	주기 신설

### 3.1.2 Dewey 十進分類法: 東洋關係細分展開表

Dewey 十進分類法: 東洋關係細分展開表는 1997년 자료 분류의 능률을 위해 DDC 제21판의 간추린 간략식 번역본을 내면서 340-349, 410-419, 810-819, 951-953을 한국 실정에 맞게 『국회도서관전개표』를 위주로 재편성한 것이다. 음악 분야에서는 ‘(789) Composers and tradition of music’에서의 3가지 선택 방안 중 B(Use 789 and its subdivision for tradition of music)에 따라 한국음악을 전개하고 있는데 국회도서관의 전개방안을 따르고 있다.<sup>13)</sup>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Dewey 十進分類法: 東洋關係細分展開表의 789 한국음악

789 한국음악	
국악	.2 멤부라노폰
현대음악 → 780.903	.3 雅樂
.07 연구·지도	.31 祭禮樂
.09 한국음악가	.33 宴禮樂
789.1 국악이론 및 기법	.4 歌樂
789.1 國樂器	.41 가곡
.102 樂典	.5 神樂
樂劇, 樂儀, 禮樂	.53 巫樂
.11 金部樂器	.6 民俗樂
.12 石部樂器	.61 관소리
.13 絲部樂器	.63 雜歌
.14 竹部樂器	.64 민요
.15 砲部樂器	.641 경기민요
.16 土部樂器	.642 남도민요-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17 董部樂器	.645 서도민요-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18 木部樂器	.645 강원도민요
.19 기타 동양악기	.65 農樂

위 <표 2>의 전개표는 악기와 악곡의 분류에 있어서 악기를 앞에 두어 국악기

13) 김연경 편역, 『Dewey 十進分類法: 東洋關係細分展開表』(金文書籍, 1997), 282-283.

와 멤브라노폰으로 나누었다. 국악기는 악기의 재료에 따라 8가지로 세분하였고, 멤브라폰은 막울림악기로 세분 전개는 하지 않았다. 국악기를 8가지로 세분한 것은 『악학궤범(樂學軌範)』의 권1 <팔음도설(八音圖說)>에 의한 것으로, 8음(音)은 8괘(卦)와 8풍(風)에 비유하여 쇠소리(金聲: 용용(春容)한 소리), 돌소리(石聲: 온윤(溫潤)한 소리), 실소리(絲聲: 섬미(纖微)한 소리), 대소리(竹聲: 청월(淸越)한 소리), 박소리(匏聲: 승취(崇聚)한 소리), 흙소리(土聲: 함호(函胡)한 소리), 가죽소리(革聲: 융대(隆大)한 소리), 나무소리(木聲: 무여(無餘) 즉 여음이 없는 소리)로 나누었다.<sup>14)</sup> 다만, 포부악기의 포가 박소리(匏)가 아니라 돌쇠뇌 소리(砲)로 표시된 것과 가죽소리의 혁부악기(革部樂器)가 동부악기(董部樂器)로 표시되어 있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악곡은 아악, 가악, 신악, 민속악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아악에는 제례악과 연례악을, 가악에는 가곡을, 신악에는 무악을 분류하였고, 민속악에는 판소리, 잡가, 민요, 농악을 넣었다.

### 3.2 한국음악전문분류법

한국음악전문분류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국전통음악자료분류법’, KBS 방송정보센터 음악정보실 분류표,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분류표 등이 있다.

#### 3.2.1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국전통음악자료분류법’

이 분류법은 첫째,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소장한 녹음자료 3,395곡에 대한 분류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둘째, 한국음악계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통음악에 대한 통일적인 분류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분류표는 1994년 10월 CD에 수록할 소악곡의 장르별 편집을 위한 것으로

14) 이혜구, 『신역악학궤범』 (국립음악원, 2000), 67-70.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항목 전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분류는 9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0 총설, 1 제례악, 2 연례악, 3 행악, 4 풍류방음악-정가, 5 풍류방음악-줄풍류, 6 민속악-성악, 7 민속악-기악, 8. 의식음악 9 연회 및 기타로 하여 1차 분류 시안을 마련하였고, 수정된 2차 분류 시안에서는 대분류가 0 총설, 1 궁중음악-제례악/ 연례악/ 거동음악, 2 풍류방음악-성악, 3 풍류방음악-기악, 4 민속악-성악 I, 5 민속악-성악 II, 6 민속악-기악, 7 민속악-불교음악, 8 민속악-무속음악, 9 연회 및 기타로 조정되었다. 최종 분류안에서는 0 총설, 1 궁중음악-제례악/ 연례악/ 거동음악, 2 풍류방음악-성악/ 기악, 3 민속악-성악 I, 4 민속악-성악 II, 5 민속악-기악 I, 6 민속악-기악 II, 7 민속악-불교음악, 8 민속악-무속음악, 9 연회 및 기타로 나누었다. 이 분류법은 음악어법에 의해 ‘궁중음악/ 풍류방음악/ 민속악’으로 크게 구분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자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회 및 기타 항목을 추가하였다.<sup>15)</sup>

이 분류표는 9개의 대분류 중 민속악이 6개 항목을 차지하고 레벨 간 분류체계의 계층 전개가 다소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문화재 자관 소장의 자료에 맞추어 만들어진 분류표라 모든 기관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sup>16)</sup>

### 3.2.2 KBS 방송정보센터 음악정보실 분류표

KBS 방송정보센터 음악정보실 분류표는 연주 중심의 자료들을 분류하기 위한 방송국의 특성을 지닌 분류표로서 주류는 ‘중세음악(외국), Classic Music, 전통음악(외국), Light Music, 국내음악, 합집’으로 구분하여 내용에 따라 강, 목으로 세분 전개하였다.

국내음악은 다시 9개의 강으로 나누었는데 ‘대중가요’(60년대 이후), 옛가요(‘50년대 이전), 국민가요, 국악, 가곡, 동요, 캐롤, 찬송가, 기타, 합집’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중 국악은 장르에 따라 ‘정악, 민속악, 종교음악, 창작국악, 기타, 합집’으로

15)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한국 전통음악 자료분류법』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11-12.

16) 국립국악원, 『전통예술사카이브의 메타데이터 설계 및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국립국악원, 2008), 84.

구분하였다. ‘정악’은 기악과 성악으로 나누어 정악-기악은 합주곡/ 중주곡/ 독주곡/ 기타/ 합집으로, 정악-성악은 가곡/ 가사/ 시조/ 기타/ 합집으로 세구분하였다. ‘민속악’은 기악, 성악, 판소리로 나누어 민속악-기악은 산조, 다스름/ 시나위/ 농악/ 민요(기악)/ 기타/ 합집으로, 민속악-성악(판소리 제외)은 민요/ 잡가/ 입창/ 병창/ 단가/ 기타/ 합집으로, 민속악-판소리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창극/ 신작판소리/ 기타/ 합집으로 세구분하였다. ‘종교음악’은 무악(巫樂)/ 범패/ 기타/ 합집으로 나누었다. ‘창작국악’(작곡가 분명, 국악악기 위주로 연주, 연주형식이 새로운 작품)은 기악-합주/ 기악-중주/ 기악/ 독주/ 성악-합창/ 성악-중창/ 성악-독창/ 기타/ 합집으로 나누었다. 기타는 토속민요(채집)/ 민속극/ 민속놀이(실황)/ 무용음악(반주용)/ 기타/ 합집으로 세분하였다. 합집은 세분하지 않았다.

이 분류표에서 국악을 일차 장르로 분류하면서 창작국악을 새로이 설정해서 나누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다만 기타와 합집이 들어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르 다음에 이차 분류는 음악의 기능에 따라 나누었는데 성악보다는 기악을 우선하여 분류한 것과 민속악의 성악에 넣어야 할 판소리를 별도 영역으로 설정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

### 3.2.3 국립국악원 전통예술아카이브 분류체계

국립국악원은 2008년 12월 한국음악 무용 연회라는 특정 주제의 자료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또한 유사 기관들 간의 표준화되고 통일된 한국전통음악 자료관리를 목적으로 전통예술아카이브의 분류체계를 만들었다.

분류체계의 레벨은 8개로 정하고 레벨 1은 ‘정악, 민속악, 창작국악, 무용, 연회, 복원·재현’의 6개로 범주화하였다. ‘정악’은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정악, 민속악, 창작국악의 하위 분류체계는 ‘성악/ 기악/ 종교음악’으로 나누고 ‘창작국악’에는 기타라는 항목을 더 두었다. ‘무용’은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으로 나누고 ‘연회’는 전통연회, 창극, 창작연회로 나누었다. 복원·재현은 가무악, 음악, 무용으로 구분하였다. 레벨 2의 수준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sup>17)</sup>



<그림 1> 국립국악원 전통예술아카이브 분류체계 레벨 2

레벨 2 이하의 레벨 3 분류는 각 영역별로 고유한 체계로 분류하였다. 정악-성악은 ‘가곡/ 가사/ 시조/ 기타’로 나누고, 정악-기악은 ‘정음/ 낙양춘/ 보허자/ 여민락/ 영산회상/ 취타/ 자진한잎/ 기타’로 나누었으며, 정악-종교음악은 ‘종묘 제례악/ 문묘제례악/ 경모궁제례악/ 기타’로 나누었다. 민속악-성악은 ‘판소리/ 병창/ 잡가/ 시창송서/ 광대소리/ 민요’로 나누었고, 민속악-기악은 ‘산조/ 시나위 / 봉장취/ 삼현육각/ 취타/ 농악/ 기타’로 나누었으며 민속악-종교음악은 ‘불교음악/ 무속음악’으로 나누었다. 창작음악-성악은 ‘창작판소리/ 도강/ 중창/ 제창/ 합창/ 성악과 관현악/ 성악과 실내악’으로 세분했고, 창작음악-기악은 ‘사물놀이/ 독주/ 중주/ 합주(관악/ 현악)/ 협주곡/ 관현악’으로 세분하였으며, 창작음악-종교음악은 ‘불교/ 무속/ 기독교/ 기타’로 세분하였다. 창작음악-기타는 세분하지 않았다. 무용-전통무용은 ‘궁중무용/ 의식무용/ 민속무용’으로 나누었고, 무용-창작무용은 ‘전통적 창작/ 현대적 창작/ 무용극/ 기타’로 나누었다. 연희-전통연희는 ‘탈놀이/ 인형놀이/ 광대굿놀이/ 줄타기/ 기타’로 나누었고, 연희-창극은 ‘춘향가/ 수궁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국극’으로 나누었다. 연희-창작연희는 ‘마당놀이/ 노래극/ 기타’로 나누었다. 복원·재현의 가무악, 음악, 무용은 세분하지 않았다.<sup>18)</sup>

17) 국립국악원, 『전통예술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 설계 및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국립국악원, 2008), 88.

18) 국립국악원, 『전통예술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 설계 및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국립국악원, 2008), 88-90.

복원·재현을 제외하고는 4-8레벨까지 분류체계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하위항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지만 너무 상세하여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 분류표는 전통예술아카이브 분류체계라 한국음악, 무용, 연희를 하나로 묶고 있는데, 음악분류표의 특성상 악곡 이외에도 악기의 분류가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 정악은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을 합친 개념으로 정의하고, 정악을 성악, 기악, 종교음악으로 세분했는데 종교음악은 궁중음악으로 바꾸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복원·재현은 레벨 2 이하는 세분하지 않으면서 주류에 넣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4.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 분류의 구성과 개정 부분

KDC 제5판의 개정 시에 한국음악이 포함된 예술 분야의 개정을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현대의 새로운 예술지식을 도입하여 확장, 신설, 수정, 전개할 것, 학문 분야의 발전에 따른 분류표의 논리적 전개를 위해 분류기호의 이동과 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국악 분야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전개할 것, DDC, LCC, NDC 등을 참조하여 비교 평가할 것 등으로 요약된다.<sup>19)</sup>

국악 분야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DC 제1판부터 제4판까지 거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답습되었다. 한국음악계의 변화되는 흐름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음악의 분류체계가 DDC 전개 방식에 기초하고 있어 전통적인 한국음악의 분류체계와 맞지 않고, 동양 제국의 전통음악을 분류항목으로 배정하지 않았으며, 기악의 전개가 전통악기 분류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

19)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KDC) 제5판 발간에 관한 공청회』 (한국도서관협회, 2008), 48.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항목 전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 작업에 있어서 한국도서관협회는 국립국악원과 협의의 하에 국악분류의 개정시안을 만들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4.1 한국음악 분야의 개정 내용

KDC 제5판에서는 KDC 제4판의 ‘679 國樂’을 ‘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으로 바꾸었다. 679.1-679.9까지 9개 영역의 분류체계를 세웠는데, ‘679.1 국악이론, 679.2 정악, 679.3 민속악, 679.4 창극, 679.5 창작국악, 679.6 타악기, 679.7 현악기, 679.8 관악기, 679.9 동양 전통음악’이다. 679.1 국악이론과 679.9 동양 전통음악을 빼면 악곡과 악기를 분류하는 2개의 기준으로 나누었다. 악곡 분류는 국악 특성에 맞는 분류표 전개를 위해 ‘679.2 정악’, ‘679.3 민속악’을 전개하여 전통적인 2분법 분류체계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전통적인 2분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창극과 창작국악은 ‘679.4 창극’, ‘679.5 창작국악’에 배정하여 정악, 민속악, 창극, 창작국악의 4분법으로 하였다. ‘679.2 정악’의 세부 항목은 ‘679.21 성악/ 679.22 기악/ 679.23 의식음악’으로 세분 전개하였고, ‘679.3 민속악’ 아래에 ‘679.31 성악/ 679.32 기악/ 679.33 불교음악/ 679.34 무속음악’을 전개하도록 하였으며, ‘679.5 창작국악’ 아래에 ‘679.51 성악/ 679.52 기악/ 679.53 종교음악’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679.9 동양 전통음악’은 지역구분 조기성을 살려서 ‘679.92 중국 전통음악/ 679.93 일본 전통음악’과 같이 전개하도록 하였다. 악기의 분류는 전통악기의 계통법에 의거하여 KDC 제4판에 전개된 ‘679.7 현악기’, ‘679.8 취주악기’를 KDC 제5판에서는 ‘679.6 타악기’, ‘679.7 현악기’, ‘679.8 관악기’로 재배정하였다.<sup>20)</sup>

이에 국악이론, 한국악곡, 한국악기, 동양 전통음악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KDC 제4판과 KDC 제5판의 전체적인 비교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 김형숙, 강순애, “KDC 제4판에서의 사부분류 항목 전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지학 연구』 제42집(2009), 438-439.

#### 4.1.1 국악이론의 분류

국악이론 분야를 보면, KDC 제4판에서 ‘679.1 국악이론 및 기법’과 그 아래 ‘679.12 악전’이었는데, KDC 제5판에서는 ‘679.1 국악이론(악전)’으로 하고 그 아래에 ‘679.11 율, 679.12 기보법, 679.13 악조, 679.14 변조, 679.15 농현, 679.16 장단, 679.17 형식과 종지형’으로 구분하였다.

#### 4.1.2 한국악곡의 분류

악곡의 분류는 한국음악 분야에서 일반화된 전통적인 2분법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679.2 정악’, ‘679.3 민속악’을 전개하고, 전통적인 2분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창극과 창작국악은 ‘679.4 창극’, ‘679.5 창작국악’에 배치하여 전통적인 분류체계가 포괄하지 못했던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679.2 정악’의 세부 항목을 ‘679.21 성악’/ ‘679.22 기악’/ ‘679.23 의식음악’으로 세분 전개하였다. ‘679.21 성악’은 세분하지 않고 “가창법[전 679.31], 가(歌)[전 679.32], 사(詞)[전 679.33], 시[전 679.34] 및 기타[679.39]를 포함한다.”라는 주기를 넣었다. ‘679.22 기악’ 또한 “여민락, 영산회상, 취타, 보허자, 낙양춘, 자진한요, 정음”의 주기를 넣었다. ‘679.23 의식음악’은 그 아래에 ‘679.231 종묘제례악’/ ‘679.232 문묘제례악’/ ‘679.233 경모궁제례악’/ ‘679.234 기타’로 세분하였다.

둘째, ‘679.3 민속악’ 아래에 ‘679.31 성악’/ ‘679.32 기악’/ ‘679.33 불교음악’/ ‘679.34 무속음악’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679.31 성악’은 그 아래에 ‘679.311 민요’/ ‘679.312 판소리’/ ‘679.313 잡가’/ ‘679.314 병창’/ ‘679.315 단가·고법’/ ‘679.316 시창·송서’/ ‘679.317 광대소리’로 세분하였다. ‘679.32 기악’은 ‘679.321 산조’/ ‘679.322 시나위’/ ‘679.323 봉장취’/ ‘679.324 삼현육각’/ ‘679.325 취타’/ ‘679.326 농악’으로 세분하였다. ‘679.33 불교음악’과 ‘679.34 무속음악’은 세분하지 않았다.

셋째, ‘679.4 창극’ 아래에는 KDC 제4판에서와 같이 세부 전개를 하지 않고 창극 아래에 “춘향전(가), 수궁가, 심청전(가), 흥부전(가), 적벽가, 구극(舊劇)[전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항목 전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684.1] 국극을 포함한다. 판소리로서의 다섯 마당은 679.312에 분류한다.”의 주기로 처리하였다.

넷째, ‘679.5 창작국악’ 아래에 ‘679.51 성악’/ ‘679.52 기악’/ ‘679.53 종교음악’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679.51 성악’은 그 아래에 ‘679.511 창작판소리’/ ‘679.512 독창’/ ‘679.513 중창’/ ‘679.514 제창’/ ‘679.515 합창’/ ‘679.516 성악과 관현악’/ ‘679.517 성악과 실내악’으로 세분하였다. ‘679.52 기악’은 ‘679.521 사물놀이’/ ‘679.522 독주’/ ‘679.523 중주’/ ‘679.524 합주’/ ‘679.525 협주(곡)’/ ‘679.526 관현악’으로 세분하였다. ‘679.53 종교음악’은 세분하지 않았고, ‘679.59 북한(창작)음악’을 신설하였다.

#### 4.1.3 한국악기의 분류

기악의 분류는 전통악기의 분류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악학궤범』의 분류법인 계통법에 의거하여 KDC 제4판에 전개된 ‘679.7 현악기’, ‘679.8 취주악기’를 KDC 제5판에서는 ‘679.6 타악기’, ‘679.7 현악기’, ‘679.8 관악기’로 재배정하였다.

‘679.6 타악기’는 ‘679.61 유물악기’, ‘679.62 무물악기’로 나누고 악기 종류는 주기로 처리하였다. ‘679.7 현악기’는 ‘679.71 활현악기(궁현악기)’, ‘679.72 발현악기 [전 현금]’, ‘679.73 타현악기’로 나누었다. ‘679.8 관악기’는 ‘679.81 가로로 부는 악기’, ‘679.82 세로로 부는 악기’로 나누고, ‘679.82 세로로 부는 악기’는 ‘679.821 홀서악기’/ ‘679.822 겹서악기’/ ‘679.823 서를 사용하지 않는 악기’로 세분하였다.

#### 4.1.4 동양 전통음악의 분류

‘679.9 동양 전통음악’은 지역구분 조기성을 살려서 ‘679.92 중국 전통음악’/ ‘679.93 일본 전통음악’/ ‘679.94 동남아시아 전통음악’/ ‘679.95 인도 전통음악’/ ‘679.96 중앙아시아 전통음악’/ ‘679.97 시베리아 전통음악’/ ‘679.98 서남아시아, 근동(중동) 전통음악’/ ‘679.99 아라비아반도 전통음악’으로 나누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KDC 제4판과 KDC 제5판을 비교하여 <표 3>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KDC 제4판과 제5판의 679 국악의 전체적인 비교표

KDC 제4판	KDC 제5판
679 國樂 樂譜는 그 主題下에 分類한다. .07 指導法 및 研究法 .072 國樂研究所, 國立國樂院 .078 演奏會 .09 國樂史 韓國音樂史 → 670.911	679 한국음악 [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 악보는 그 주제하에 분류한다. .07 지도법 및 연구법 .072 국악연구소, 국립국악원 .078 연주회 .09 국악사 한국음악사 → 670.911
679.1 國樂理論 및 技法 .12 樂典 樂劇, 樂儀, 樂禮 등을 포함한다.	679.1 국악이론(악전 樂典) [전 679.12] 악극, 악의, 악례를 포함한다. .11 율(律) .12 기보법 .13 악조(樂調) .14 변조(變調) .15 농현(弄絃) .16 장단(長短) .17 형식과 종지형
	679.2 정악 .21 성악 [전 679.3] 가창법[전 679.31], 가(歌)[전 679.32], 사(詞)[전 679.33], 시[전 679.34] 및 기타[679.39]를 포함한다. .22 기악 여민락, 영산회상, 취타, 보허자, 낙양춘, 자진한요, 정음 .23 의식음악 .231 문묘제례악 .232 문묘제례악 .233 경모공제례악 .234 기타
679.3 聲樂 .31 歌唱法 .32 歌 .33 詞 .34 詩 .35 民謠, 風謠 京畿民謠, 南道民謠, 西道民謠 등을 포함한다. 民謠(文學) → 811.4 .39 기타	679.3 민속악 .31 성악 .311 민요 경기민요(경북공타령, 군발타령, 노들강변 등을 포함한다), 서도민요(간지타령, 개성난봉가, 몽금포타령 등을 포함한다), 동부민요(강원도 아리랑, 꿩지나청청나네, 밀양아리랑 등을 포함한다), 남도민요(강강술래, 금강산타령, 진도아리랑 등을 포함한다), 제주민요(개구리타령, 계화타령, 관덕정 등을 포함한다)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항목 전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KDC 제4판	KDC 제5판
	<p>민요(문학) → 811.4                      .312 판소리                      다섯마당(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과 장끼타령, 변강쇠타령, 무속이타령, 배비장 타령, 강릉매화전, 숙영낭자전, 가짜신선타령, 응고집(타령) 등을 포함한다.                      창곡으로서의 다섯마당은 679.4에 분류한다.                      .313 잡가                      경기(잡가), 서도(잡가)[전 679.41], 남도(잡가)[전 679.43] 입창(선소리), 좌청(12잡가), 휘모리잡가를 포함한다.                      .314 병창                      가야금병창, 거문고병창, 기타 병창                      .315 단가 · 고법                      .316 시창 · 송서                      독서성, 당음을 포함한다.                      .317 광대소리                      배뱅이굿, 장대장타령                      .32 기악                      제주악 [전 679.5]를 포함한다.                      .321 산조 [전 679.59]                      .322 시나위 [전 679.59]                      .323 봉장취                      .324 삼현육각                      .325 취타                      요악, 군악[전 679.54], 개선가를 포함한다.                      .326 농악(풍물놀이) [전 679.59]                      .33 불교음악                      범패, 화청, 회심곡, 염불 및 기타 음악                      .34 무속음악 [전 679.59]                      친도제, 잡굿, 마을굿, 내림굿, 병굿, 개인굿 및 기타 음악</p>
<p>679.4 唱劇                      판소리를 포함한다. 例: 春香歌, 沈清歌, 興夫歌                      .41 西道唱                      .43 南道唱</p>	<p>679.4 창극                      춘향전(가), 수궁가, 심청전(가), 흥부전(가), 적벽가, 구극(舊劇)[전 684.1] 국극을 포함한다.                      판소리로서의 다섯마당은 679.312에 분류한다.</p>
<p>679.5 諸奏樂                      .51 大豫樂(郊廟樂)                      .52 周頌雅樂                      辟雍, 饗, 射, 六宗, 社稷, 用樂 등을 포함한다.                      .53 聖明樂, 蒸門鼓吹樂                      君臣宴會樂을 포함한다.                      .54 鎗樂(軍樂)                      凱旋歌를 포함한다.</p>	<p>679.5 창작국악                      .51 성악                      .511 창작 판소리                      열사가(류관순열사가, 이준열사가 등) 이후에 창작된 판소리는 이곳에 분류한다.                      .512 독창                      .513 중창                      .514 제창</p>

KDC 제4판	KDC 제5판
<p>短簫 → 679.85 .59 기타 俗樂, 鄉樂 散調, 다스림, 農樂, 시나위, 巫樂 등을 포함한다.</p>	<p>.515 합창 .516 성악과 관현악 .517 성악과 실내악 .52 기악 .521 사물놀이 .522 독주 .523 중주 .524 합주 관악합주, 현악합주를 포함한다. .525 협주(곡) .526 관현악 .53 종교음악 .59 북한(창작)음악</p>
	<p>679.6 타악기 [전 679.89] .61 율악기 [전 679.891] [전 679.894] [전 679.895] 편종, 편경, 특종, 특경, 방항, 운라 .62 무율악기 [전 679.894] [전 679.896] [전 679.897] [전 679.898] 자바라, 징, 대금(大金), 소금(小金), 썩과리, 박, 축, 어, 부, 장고(杖鼓), 갈고, 절고, 좌고, 소고, 용고, 교방고, 노고, 뇌고, 뇌도, 영고, 영도, 노도, 도, 건고, 삭고, 응고, 중고, 무고, 진고, 북, 소리북, 설쇠, 물장구, 허벅, 순, 탁 [전 679.892], 요, 영 [전 679.893]</p>
<p>679.7 絃樂器 .71 琴, 瑟(슬) .72 玄琴 .73 伽倻琴 .74 鄉琵琶, 唐琵琶 .75 牙箏(아쟁) .76 大箏 .77 月琴 .78 奚琴(해금) .79 臥箏篥, 堅箏篥, 手箏篥</p>	<p>679.7 현악기 .71 찰현악기(궁현악기) 해금[전 679.78], 아쟁[전 679.75] .72 발현악기 [전 현금] 가야금[전 679.73], 거문고, 향비파[전 679.74], 당비파[전 679.74], 금, 슬[전 679.71], 대쟁[전 679.76], 월금[전 679.77], 수공후, 소공후, 와공후[전 679.79], 완함 .73 타현악기 양금</p>
<p>679.8 吹奏樂器 .81 喇叭(나팔) .82 大竽, 中竽, 小竽 .83 唐笛 .84 鄉簫, 唐簫, 細簫(세필름) .85 洞簫, 短簫 .86 簫, 邃(약, 적) .87 篪(지), 簫(소), 太平簫 .88 笙(생황) .889 기타 樂器 埙(훈), 螺角(나각) 등을 포함한다.</p>	<p>679.8 관악기 .81 가로로 부는 악기 대금, 중금, 소금(당적)[전 679.83], 지[전 679.87] .82 세로로 부는 악기 .821 홀서악기 생황[전 679.88] .822 겹서악기 [전 679.84]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전 679.84], 쌍피리, 태평소[전 679.87] .823 서를 사용하지 않는 악기 [전 679.81] [전 679.85] [전 679.86] [전 679.889]</p>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항목 전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KDC 제4판	KDC 제5판
.89 打樂器 Percussion .891 鐘 鐘, 特鐘, 方響 등을 포함한다. .892 도, 축 .893 鈔, 鐸, 鈴 .894 羅 桴桴羅(기발라), 雲羅(九雲羅, 雲桴)鉦, 大金, 小金 등을 포함한다. .895 編磬, 特磬 .896 鼓 杖鼓, 羯鼓, 龍鼓, 節鼓, 坐鼓, 晉鼓, 建鼓, 路鼓, 雷鼓, 靈鼓, 中鼓, 教坊鼓 등을 포함한다. .897 鼗 路鼗, 雷鼗, 靈鼗 등을 포함한다. .898 柷(백), 祝(축), 敔(어) .899 기타 樂器	약, 적, 퉁소, 단소, 나각, 나발, 훈
	679.9 동양 전통음악 .92 중국 전통음악 [전 679.51-.53] 대례악, 주송악(벽용, 향, 사, 육중, 사직, 용악 등), 성명악, 중문고취악, 군신연회악 등을 포함한다. .93 일본 전통음악 .94 동남아시아 전통음악 .95 인도 전통음악 .96 중앙아시아 전통음악 .97 시베리아 전통음악 .98 서남아시아, 근동(중동) 전통음악 .99 아라비아반도 전통음악

### 5.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 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DC 제5판의 ‘679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분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음악이론, 악곡, 악기, 동양전통음악으로 네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각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추가할 부분 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5.1 정악의 세부분류의 수정 전개

‘679.2 정악’의 세부 항목은 ‘679.21 성악’/ ‘679.22 기악’/ ‘679.23 의식음악’으로 세분 전개하였다. 정악의 의미는 무엇이며 정악을 세분하면서 의식음악의 용어를 사용한 것과 의식음악의 세부 분류가 합당한가 하는 것이다.

정악(正樂)은 아정한 음악 또는 정대한 음악의 준말로 현재 전통음악의 통칭인 아악(雅樂)과 동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조선 후기 풍류방의 음악문화를 계승한 구한말의 ‘정악유지회’와 ‘조선정악진습소’ 및 광복 이후 ‘한국정악원’의 명칭에서 유래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부원양성소’에 전승되면서 정악이라는 용어가 광복 이후 민속악의 대칭어로 사용되었다. 이런 풍류방의 음악 문화는 크게 성악과 기악의 두 갈래로 발전하는데, 성악의 대표적인 갈래는 가곡·시조·가사이고, 줄풍류로 알려진 영산회상이 기악의 대표적인 갈래이다.<sup>21)</sup>

국립국악원 전통예술아카이브 분류체계에서는 정악은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하고 하위 분류체계는 성악/ 기악/ 종교음악으로 나누었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국전통음악자료분류법에서는 정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대신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궁중음악은 제례악/ 연례악/ 거동음악으로 풍류방음악은 성악/ 기악으로 나누었다.

KDC 제5판에서 사용하고 있는 ‘679.2 정악’이라는 용어는 국립국악원 전통예술 아카이브 분류체계에서와 같이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한 것이니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좋을 듯하다. KDC 제5판에서 ‘679.2 정악’은 ‘679.21 성악’/ ‘679.22 기악’/ ‘679.23 의식음악’으로 세분 전개하였고, 이중 ‘679.23 의식음악’은 그 아래에 ‘679.231 종교제례악’/ ‘679.232 문묘제례악’/ ‘679.233 경모궁 제례악’/ ‘679.234 기타’로 세분하였는데, 제례악 중심으로 분류가 세분되어서 궁중음악의 범주를 다 포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정을 하는 경우는 ‘679.2 정악’은 그대로 두고 ‘679.21 궁중음악’, ‘679.22 풍류방음악’으로 세분하고, 궁중음악은 ‘679.211 제례악’/ ‘679.232 연례악’/ ‘679.233

21) 宋芳松, 『중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396.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항목 전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행악(거동음악)/ ‘679.234 기타’로 나누고, ‘679.22 풍류방음악’은 ‘679.221 성악’/  
 ‘679.222 기악’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 5.2 불교음악의 주기 삭제 및 세분 전개

KDC 제5판에서는 ‘679.3 민속악’ 아래에 ‘679.31 성악’/ ‘679.32 기악’/ ‘679.33 불교음악’/ ‘679.34 무속음악’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679.33 불교음악’은 세분 전개는 하지 않고 그 아래 “범패, 화청, 회심곡, 염불 및 기타 음악”으로 주기하였는데 불교음악을 표기하는 적절한 주기라고 보기 어렵다.

불교음악은 전체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노래로 전문적인 의식음악인 범패(梵唄), 일반적인 의식음악인 평염불(平念佛), 그리고 20세기 초부터 서양의 오선보 형식으로 불리어지는 찬불가(讚佛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sup>22)</sup>

이중 범패는 범음의 가패라는 뜻을 지닌다. 패(唄)란 패익(唄匿)의 약어이며, 찬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범패는 성명(聲明), 찬패(讚唄), 경패(經唄)라고도 하는데 이는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는 것을 말하고 한편으로는 각종 계송을 시창하여 불덕을 찬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음(梵音), 범패(梵唄)라고 한다.<sup>23)</sup> 범패는 가곡, 판소리와 함께 한국 3대 성악으로 불린다. 범패는 음악 스타일에 따라서 ‘안채비소리, 훗소리, 짓소리, 화청·회심곡’의 네 종류로 이루어진다. 안채비소리는 재를 올리는 사람을 위해 절 안의 범주승이 부르는 노래이고, 훗소리는 범패승이 다른 절에 초청받고 가서 노래 불러 주는 바깥채비의 노래이고, 짓소리는 넓은 도량에서 여러 팀이 합창하는 소리이며, 화청·회심곡은 대중이 잘 알 수 있는 소리조로 쉬운 사설을 엮어 재를 끝낼 때 부르는 노래이다. 『삼국유사』 권5 <月明師 도술가조>의 기록이나 진감선사의 대공탑비문 등을 통해서 이미 8-9세기경에 한반도에서 불려서 고려·조선을 거쳐 오늘에 전승되고 있으며 1973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 육성되고 있다.<sup>24)</sup>

22) 법현, 『한국의 불교음악』 (운주사, 2005), 53.

23) 위의 책, 53.

24) 백대웅, “국악의 이해(2): 장르적 이해,” 『음악과 민족』 12집(1986), 119.

KDC 제5판의 '679.33 불교음악'은 현재 들어가 있는 “범패, 화청, 회심곡, 엄불 및 기타 음악”의 주기는 생략하고 불교음악 아래에 '679.331 범패' / '679.332 평엄불' / '679.333 찬불가'로 세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 5.3 무속음악의 주기 삭제 및 세분 전개

KDC 제5판에서는 '679.3 민속악' 아래에 '679.31 성악' / '679.32 기악' / '679.33 불교음악' / '679.34 무속음악'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679.34 무속음악'은 세분 전개는 하지 않고 그 아래 “천도제, 잡굿, 마을굿, 내림굿, 병굿, 개인굿 및 기타 음악”으로 주기하였는데 무속음악을 표기하는 적절한 주기라고 보기 어렵다.

무속음악은 굿을 할 때 절차(거리)에 따라 부르는 무당의 노래를 말한다. 무교음악(巫敎音樂)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무악(巫樂)이라고도 한다. 무가의 형식은 전반적으로 그 사실 내용에 따라 청신무가(淸神巫歌), 본풀이무가(本解巫歌: 敍事巫歌), 놀이무가(遊歌)로 나누어진다. 청신무가는 부정거리처럼 제신(諸神)을 청하고 뒷전거리와 같이 청해온 제신을 배송시키는 따위의 무가를 말한다. 본풀이무가는 서사시적이어서 경기의 바리공주, 동해안 지방의 심청굿, 군웅풀이처럼 어떤 사건을 장절의 구분 없이(통절형식) 길게 묘사하는 노래 스타일을 말한다. 놀이무가는 민요처럼 유절형식으로 되어 있고 특히 경기지방에 많다. 창부타령, 노랫가락, 재석타령, 대감타령, 성주풀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이러한 놀이무가는 일반에게도 널리 퍼져서 민요로 혼동되어 애창되기도 한다.<sup>25)</sup>

KDC 제5판의 '679.34 무속음악'은 현재 들어가 있는 “천도제, 잡굿, 마을굿, 내림굿, 병굿, 개인굿 및 기타 음악”의 주기는 생략하고, 무속음악 아래에 '679.341 청신무가' / '679.342 본풀이무가' / '679.343 놀이무가'로 세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25) 권오성, 『한국의 종교음악』 (보고사, 2010), 32.

## 5.4 기독교음악의 추가 전개

KDC 제5판에서는 ‘679.3 민속악’ 아래에 ‘679.31 성악’/ ‘679.32 기악’/ ‘679.33 불교음악’/ ‘679.34 무속음악’은 전개하고 기독교음악이 빠져 있다. 민속악에서 기독교음악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독교음악은 천주교음악과 개신교음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천주교음악은 천주가사, 연도, 가톨릭 국악성가 등으로 나누어지고, 개신교음악은 예배음악과 찬송가로 나누어진다.

천주교음악의 천주가사는 ‘천주’라는 서학사상의 핵심어와 전통적 문학 장르를 가리키는 ‘가사’라는 말이 융합된 합성어로서, 신앙고백이나 포교 등의 내용을 수록한 3·4조나 4·4조의 형식이다. 이는 천주찬가, 천주교 성가, 천당노래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천주가사로 지칭되고 있다. 천주가사의 음악적 특징은 민요의 영향을 받았으며 천주공경가, 십계명가, 사랑가, 삼세대의 등 50여종의 가사가 전래되고 있다. 연도(煉禱)는 죽은 영혼의 구원과 자신의 구원을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 형태로서 상호 교환창으로 노래한다. 교환창에서는 한 개인이 주관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두 주관자가 됨으로서 상사(喪事)를 공동이 풀어가는 형식이다. 연도의 리듬은 3·2박형 구조이며 15세기 세조악보와 같은 맥락으로 전통음악의 원형성은 물론 황금비율과 피보나치수열이 적용되어 우주와의 조화를 이루는 미학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되었다. 가톨릭 성가는 한국천주교회의 초기에는 일반신자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구전을 통해 전해진 천주가사와 함께 그레고리오 성가가 교회음악의 주류를 이루었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프랑스 성가집이 한글성가집으로 발간되고 전통가락과 천주사상이 융합된 한국풍의 국악성가들이 시대별로 그 특징을 지니면서 현재까지 발전되었다.<sup>26)</sup>

개신교음악의 예배음악은 하느님께 드리는 거룩한 음악이며 세속과는 다른 품위와 절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찬송가는 입례찬송, 헌신찬송, 주례찬송으로 나눌

26) 권오성, 『한국의 종교음악』 (보고사, 2010), 475-508.

수 있다. 입례찬송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개회찬송이라고도 한다. 헌신찬송은 예배를 마치면서 부르는 것으로 폐회찬송이라고도 한다. 주례찬송은 목사의 설교 내용과 부합되는 찬송을 말한다. 개신교성가는 19세기 말엽에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미국 장로교 찬송가와 부흥교회용 노래집에서 수록한 노래가 중심이 되었다. 20세기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합동의 합동찬송가, 이와 다른 입장의 신편찬송가와 개편찬송가로 분립되었다.<sup>27)</sup>

따라서 KDC 제5판에서는 ‘679.3 민속악’ 아래에 ‘679.31 성악’/ ‘679.32 기악’/ ‘679.33 불교음악’/ ‘679.34 무속음악’ 다음에 ‘679.35 기독교음악’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679.351 천주교음악’/ ‘679.352 개신교음악’을 세분 전개하며, 필요한 경우 ‘679.351 천주교음악’ 다음에 “천주가사, 연도, 가톨릭 국악성가 및 기타 음악”의 주기와 ‘679.352 개신교음악’ 다음에 “예배음악과 찬송가 및 기타 음악”의 주기를 넣어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5.5 동양전통음악의 세분 전개

KDC 제5판에서 ‘679.9 동양 전통음악’은 지역구분 조기성을 살려서 ‘679.92 중국 전통음악’/ ‘679.93 일본 전통음악’/ ‘679.94 동남아시아 전통음악’/ ‘679.95 인도 전통음악’/ ‘679.96 중앙아시아 전통음악’/ ‘679.97 시베리아 전통음악’/ ‘679.98 서남아시아, 근동(중동) 전통음악’/ ‘679.99 아라비아반도 전통음악’으로 나누었다.

지역별 전통음악 중 중국의 전통음악과 일본의 전통음악은 한국음악과도 관련이 많아 세분 전개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중국도서분류법(이하 ‘CSC’로 칭함)<sup>28)</sup>과 중국도서관분류법(이하 ‘중도법’으로 칭함)<sup>29)</sup>은 중국의 전통음악과 동양의 전

27) 권오성, 『한국의 종교음악』 (보고사, 2010), 508-521.

28) 중국도서분류법(New Classification Scheme for Chinese Libraries ; CSC)은 1929년 유국균(劉國鈞)에 의하여 대만에서 편찬된 것이다. 이 분류표는 남경(南京)의 금릉대학도서관(金陵大學圖書館)의 중문(中文)도서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분류법을 참조하여 편찬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1년 최신판인 개정 8판이 편찬 간행되었다.

29) 김종진, “중국도서관분류법의 분류 기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22집(2001), 203에 의하면, 『중국도서관분류법(Chinese Library Classification)』은 중국국가문물관리국의 배려와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항목 전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음악을 세분 전개하는 방법이 다르다.

CSC는 ‘91 音樂’ 아래 ‘911 樂理及音樂技巧’, ‘912 合奏及樂團’, ‘913 聲樂·歌曲’, ‘914 舞蹈音樂’, ‘915 劇樂’, ‘916 絃樂’, ‘917 鍵盤器樂’, ‘918 管樂’, ‘919 機械樂；打擊樂’으로 나누었다. ‘910.9 音樂史及各國音樂狀況’ 아래 ‘910.98 中國音樂家’/ ‘910.989 臺灣音樂家’로 나누었고, ‘912 合奏及樂團’ 아래 ‘912.1 國樂合奏’를 별도로 넣었다. ‘914 舞蹈音樂’은 .1- .6은 西洋舞樂, 7- .9는 東洋舞樂으로 나누고 ‘914.7 中國舞樂’/ ‘914.8 日本舞樂’/ ‘914.9 韓國及其他東洋舞樂’으로 세분하였다. ‘915 劇樂’ 아래 ‘915.1 中國劇樂’/ ‘915.2 西洋劇樂’/ ‘915.3 東洋劇樂’으로 나누고, ‘915.3 東洋劇樂’은 그 아래 ‘915.31 日本劇樂’/ ‘915.32 韓國唱劇’으로 세분하였다. ‘916 絃樂’은 그 아래 ‘915.7 東方絃樂器’를 넣고 국별로 세분하지 않았다. ‘918 管樂’은 그 아래 ‘918.1 東洋木管樂器’를 배정하고 중국의 전통악기를 분류하도록 주기하였으며 ‘918.11 日本’/ ‘918.12 韓國’으로 세분하였다. ‘919 機械樂；打擊樂’ 아래 ‘919.1 鼓類’를 배정하고 ‘919.18 東洋鼓’를 배정하였다. 이와 같이 CSC는 중국음악과 동양음악이 각 음악의 주제 아래 일부 배정되었고, 동양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을 우위에 두었으며, 특이한 것은 ‘914.8 日本舞樂’은 ‘914.7 中國舞樂’보다 상세하게 분류하였다.

중도법은 ‘J6 音樂’ 아래 ‘J61 音樂技術理論與方法’, ‘J62 器樂理論與演奏法’, ‘J63 民族器樂理論和演奏法’, ‘J64 中國音樂作品’, ‘J65 各國音樂作品’으로 나누었는데, 중국음악의 분류가 매우 상세하게 세분되었다. ‘J6 音樂’ 아래 ‘J607 民族音樂研究’, ‘J609 音樂史’ 아래 ‘J609.2 中國’을 별도로 넣었다. ‘J61 音樂技術理論與方法’의 ‘J612 樂律學’ 아래 ‘J612.1 中國’을 배정하였다. ‘J63 民族器樂理論和演奏法’은 그 아래 ‘J632 中國民族器樂’과 ‘J633/ 637 各國民族音樂’ 및 ‘J639 기타’로 나누었다. ‘J632 中國民族器樂’은 ‘J632.1 吹奏樂理論和演奏法’/ ‘J632.2 弓弦樂理論和演奏法’/ ‘J632.3 彈撥樂理論和演奏法’/ ‘J632.5 打擊樂理論和演奏法’/

---

지원 아래에 북경도서관이 제안하고 전국 36개 기관이 참조하여 편찬한 분류법이다. 1975년 초판이 간행된 이래 중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도서분류법이 되었으며, 1981년에 중국국가표준국은 전국 문헌 표준화 기술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도법을 국가 사용 표준으로 삼았다. 그 후 1999년 3월 최신판인 제4판이 편찬 간행되었다.

‘J632.6 民族器樂合奏樂理論和演奏法’/ ‘J632.7 地方音樂器樂合奏理論和演奏法’으로 세분하였다. ‘J64 中國音樂作品’은 ‘J641 音樂作品綜合集’/ ‘J642 歌曲’/ ‘J643 戲劇音樂, 配樂音樂曲譜’/ ‘J644 曲藝音樂樂曲’/ ‘J645 舞蹈樂曲’/ ‘J647 器樂曲’으로 세분하였다. 중도법은 중국음악을 우선하여 상세히 전개하되 중국 이외의 음악은 각국 음악이라 하여 동양 음악과 서양 음악으로 양분하지 않았다. 중국음악 중 ‘J632 中國民族器樂’과 ‘J64 中國音樂作品’을 상세하게 분류하였다.

KDC 제5판에서는 CSC보다 중도법을 수용하여 ‘679.92 중국 전통음악’ 아래 ‘679.921 中國民族音樂’과 ‘679.922 中國音樂作品’으로 세분한 다음 ‘679.921 中國民族音樂’의 아래 “吹奏樂, 弓弦樂, 彈撥樂, 打擊樂, 民族器樂合奏樂, 地方音樂器樂合奏 및 기타 음악”으로 주기를 넣고, ‘679.922 中國音樂作品’의 아래 “音樂作品綜合集, 歌曲, 戲劇音樂·配樂音樂, 曲藝音樂, 舞蹈樂曲, 器樂曲 및 기타 음악작품”으로 주기를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은 NDC 신정 9판의 경우 ‘760 음악’ 아래 ‘768 邦樂 Nipponese music’을 분류하고 있다. 그 아래에 ‘768.1 邦樂器’/ ‘768.2 雅樂, 舞樂’/ ‘768.3 琵琶樂’/ ‘768.4 謠曲, 謠本’/ ‘768.5 三味線曲, 淨瑠璃, 義太夫’/ ‘768.6 箏曲, 琴歌’/ ‘768.7 新日本音樂’/ ‘768.8 囃子’/ ‘768.9 詩吟, 朗詠’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 세분표를 받아 들여 ‘679.93 일본 전통음악’ 아래 ‘679.931’부터 ‘679.939’까지 세분 전개하는 방법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6. 결 론

위에서 연구한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음악사는 삼국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향악, 당악, 아악의 세 갈래가 주류를 형성하였다. 조선 후기(1592-1894)는 민속악이 새로운 양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갑오경장(1894)부터 해방(1945) 이전까지의 근대는 전통음악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서양음악을 수용하던 시대였다. 해방 이후에는 한국음악의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항목 전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방향모색시대 ‘국악’이라는 용어가 더욱 일반화되어 사용되었다. 1950년대 ‘韓國音樂’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각 문헌과 논문에서 ‘한국음악’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게 되었다. 한국음악은 조선조는 『악학궤범』에 의해 당시의 궁중음악을 아악, 당악, 향악으로, 한국악기를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의 3분법으로 분류하였다. 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한국음악을 종류별로 시도한 것에 불과하였다. 1970년대는 일차 분류를 장르로 구분하여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누거나, 아악과 민속악으로 나누었고, 사회계층에 기준을 두어 궁정음악과 민간음악으로 나누는 이분적 분류방식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차 분류는 음악의 기능에 따라 아악을 제례악, 연례악, 군악으로 나누거나 연주 형태에 따라 성악과 기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1980년대는 일차 분류를 장르에 따라 삼분법 또는 사분법 분류를 하였는데, 일차 분류의 중요 영역에 의식음악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2) 도서관계의 표준분류법은 KDC와 Dewey 十進分類法: 東洋關係細分展開表이고, 한국음악전문분류법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국전통음악자료분류법’, KBS 음악정보실분류표, 국립국악원 전통예술아카이브 분류체계이다.

첫째, KDC 제1판(1964)에서는 ‘679 國樂’ 아래에 679.01-09 표준구분, 679.1 國樂 理論 및 方法, 679.3 聲樂, 679.4 唱劇, 679.5 諸奏樂, 679.7 絃樂器, 679.8 吹奏樂器, 679.89 打樂器로 구분하였다. KDC 제1판(1964)부터 제2판(1968), 제3판(1980), 제4판(1996)까지 국악 분야의 변화는 용어 변경, 분류항목의 이치 및 신설, 용어 변경과 주기 신설이 된 것과 주기만 신설된 것 등의 미미한 변화가 있었다.

둘째, Dewey십진분류법: 東洋關係細分展開表는 DDC 제21판의 간추린 간략식 번역본을 내면서 340-349, 410-419, 810-819, 951-953을 한국 실정에 맞게 『국회도서관전개표』를 위주로 재편성한 것이다. 악기와 악곡의 분류에 있어서 악기를 앞에 두어 국악기와 멤브라노폰으로 나누었다. 국악기는 악기의 재료에 따라 8가지로 세분하였고, 멤브라폰은 막울림악기로 세분 전개는 하지 않았다. 악곡은 아악, 가악, 신악, 민속악의 4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셋째, 한국전통음악자료분류법은 음악어법에 의해 궁중음악/ 풍류방음악/ 민

속악으로 크게 구분하고 세부안은 민속악을 자세하게 구분하여 '0 총설, 1 궁중음악-제례악/ 연례악/ 거동음악, 2 풍류방음악-성악/ 기악, 3 민속악-성악 I, 4 민속악-성악 II, 5 민속악-기악 I, 6 민속악-기악 II, 7 민속악-불교음악, 8 민속악-무속음악, 9 연희 및 기타'로 나누었다.

넷째, KBS 방송정보센터 음악정보실 분류표는 주류는 '중세음악(외국), Classic Music, 전통음악(외국), Light Music, 국내음악, 합집'으로 구분하여 내용에 따라 강, 목으로 세분 전개하였다. 국내음악은 다시 9개의 강으로 나누고, 그중 국악은 장르에 따라 '정악, 민속악, 종교음악, 창작국악, 기타, 합집'으로 구분하였다.

다섯째, 국립국악원의 전통예술아카이브의 분류체계는 레벨은 8개로 정하고 레벨 1은 '정악, 민속악, 창작국악, 무용, 연희, 복원·재현'의 6개로 범주화하였다. 정악은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정악, 민속악, 창작국악의 하위 분류체계는 성악/ 기악/ 종교음악으로 나누고 창작국악에는 기타라는 항목을 더 두었다. 무용은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으로 나누고 연희는 전통연희, 창극, 창작연희로 나누었다. 복원·재현은 가무악, 음악, 무용으로 구분하였다.

3) KDC 제5판에서는 KDC 제4판의 '679 國樂'을 '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으로 바꾸었다. 679.1-679.9까지 9개 영역의 분류체계를 세웠는데, '679.1 국악이론, 679.2 정악, 679.3 민속악, 679.4 창극, 679.5 창작국악, 679.6 타악기, 679.7 현악기, 679.8 관악기, 679.9 동양 전통음악'이다. '679.1 국악이론'과 '679.9 동양 전통음악'을 빼면 악곡과 악기를 분류하는 2개의 기준으로 나누었다. 악곡분류는 국악 특성에 맞는 분류표 전개를 위해 '679.2 정악', '679.3 민속악'을 전개하여 전통적인 2분법 분류체계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전통적인 2분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창극과 창작국악은 '679.4 창극', '679.5 창작국악'에 배정하여 정악, 민속악, 창극, 창작국악의 4분법으로 하였다. 악기 분류는 전통악기의 계통법에 의거하여 KDC 제4판에 전개된 '679.7 현악기', '679.8 취주악기'를 KDC 제5판에서는 '679.6 타악기', '679.7 현악기', '679.8 관악기'로 재배정하였다.

4) KDC 제5판의 '679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분류는 한국음악이론, 악곡, 악기, 동양전통음악으로 네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각 영역에서 문제가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항목 전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되는 부분, 추가할 부분 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679.2 정악’은 ‘679.21 성악’/ ‘679.22 기악’/ ‘679.23 의식음악’으로 세분 전개하였고, 이중 ‘679.23 의식음악’은 그 아래에 ‘679.231 종묘제례악’/ ‘679.232 문묘제례악’/ ‘679.233 경모궁제례악’/ ‘679.234 기타’로 세분하였는데, 제례악 중심으로 분류가 세분되어서 궁중음악의 범주를 다 포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정을 하는 경우는 ‘679.2 정악’은 그대로 두고 ‘679.21 궁중음악’, ‘679.22 풍류방음악’으로 세분하고, 궁중음악은 ‘679.211 제례악’/ ‘679.232 연례악’/ ‘679.233 행악(거동음악)’/ ‘679.234 기타’로 나누고, ‘679.22 풍류방음악’은 ‘679.221 성악’/ ‘679.222 기악’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679.33 불교음악’은 ‘679.3 민속악’ 아래에 세분 전개는 하지 않고 그 아래 “범패, 화청, 회심곡, 염불 및 기타 음악”으로 주기하였는데 불교음악을 표기하는 적절한 주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679.33 불교음악’은 현재 들어가 있는 “범패, 화청, 회심곡, 염불 및 기타 음악”의 주기는 생략하고 불교음악 아래에 ‘679.331 범패’/ ‘679.332 평염불’/ ‘679.333 찬불가’로 세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679.34 무속음악’은 ‘679.3 민속악’ 아래에 세분 전개는 하지 않고 그 아래 “천도제, 잡굿, 마을굿, 내림굿, 병굿, 개인굿 및 기타 음악”으로 주기하였는데 무속음악을 표기하는 적절한 주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679.34 무속음악’은 현재 들어가 있는 “천도제, 잡굿, 마을굿, 내림굿, 병굿, 개인굿 및 기타 음악”의 주기는 생략하고, 무속음악 아래에 ‘679.341 청신무가’/ ‘679.342 본풀이무가’/ ‘679.343 놀이무가’로 세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민속악에서 기독교음악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KDC 제5판 ‘679.3 민속악’ 아래에 ‘679.31 성악’/ ‘679.32 기악’/ ‘679.33 불교음악’/ ‘679.34 무속음악’은 전개하고 기독교음악이 빠져 있다. 따라서 ‘679.3 민속악’ 아래에 ‘679.31 성악’/ ‘679.32 기악’/ ‘679.33 불교음악’/ ‘679.34 무속음악’ 다음에 ‘679.35 기독교음악’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679.351 천주교음악’/ ‘679.352 개신교음악’을 세분 전개하고, 필요한 경우 ‘679.351 천주교음악’ 다음에 “천주가사, 연도, 가톨릭 국악성가

및 기타 음악”의 주기와 ‘679.352 개신교음악’ 다음에 “예배음악과 찬송가 및 기타 음악”의 주기를 넣어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679.9 동양 전통음악’은 지역구분 조기성을 살려서 ‘679.92 중국 전통음악’/ ‘679.93 일본 전통음악’/ ‘679.94 동남아시아 전통음악’/ ‘679.95 인도 전통음악’/ ‘679.96 중앙아시아 전통음악’/ ‘679.97 시베리아 전통음악’/ ‘679.98 서남아시아, 근동(중동) 전통음악’/ ‘679.99 아라비아반도 전통음악’으로 나누었다. 지역별 전통음악 중 중국의 전통음악과 일본의 전통음악은 한국음악과도 관련이 많아 세분 전개를 할 필요가 있다. ‘679.92 중국 전통음악’은 CSC보다 중도법을 수용하여 ‘679.92 중국 전통음악’ 아래 ‘679.921 中國民族音樂’과 ‘679.922 中國音樂作品’으로 세분한 다음 ‘679.921 中國民族音樂’의 아래 “吹奏樂, 弓弦樂, 彈撥樂, 打擊樂, 民族器樂合奏樂, 地方音樂器樂合奏 및 기타 음악”으로 주기를 넣고, ‘679.922 中國音樂作品’의 아래 “音樂作品綜合集, 歌曲, 戲劇音樂·配樂音樂, 曲藝音樂, 舞蹈樂曲, 器樂曲 및 기타 음악작품”으로 주기를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679.93 일본 전통음악’은 NDC 신정 9판의 세분포에 전개된 ‘768.1 邦樂器’/ ‘768.2 雅樂, 舞樂’/ ‘768.3 琵琶樂’/ ‘768.4 謠曲, 謠本’/ ‘768.5 三味線曲, 淨瑠璃, 義太夫’/ ‘768.6 箏曲, 琴歌’/ ‘768.7 新日本音樂’/ ‘768.8 囃子’/ ‘768.9 詩吟, 朗詠’을 받아들여 ‘679.93 일본 전통음악’ 아래 ‘679.931’부터 ‘679.939’까지 세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권오성. 『한국의 종교음악』. 보고서, 2010.

국립국악원. 『전통예술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 설계 및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국립국악원, 2008.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한국 전통음악 자료분류법』.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항목 전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연경 편역. 『Dewey 十進分類法: 東洋關係細分展開表』. 金文書籍, 1997.
- 김중천. “중국어도서관분류법의 분류 기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22집(2001).
- 김형숙, 강순애. “KDC 제4판에서의 사부분류 항목 전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2집(2009).
- 국립중앙도서관. 『KDC 자료분류과정』. 국립중앙도서관, 2009.
- 賴永祥 編訂. 『中國圖書分類法』 改訂 8版. 臺北: 文華圖書館管理, 2001.
- 백대웅. “국악의 이해(2): 장르적 이해.” 『음악과 민족』 12집(1986).
- 법 현. 『한국의 불교음악』. 운주사, 2005.
- 변계원. “20C초 한국 전통음악계의 혁신 -창작국악의 발생과정 연구.” 『예술논집』 9(2009).
- 徐洪範. 『國樂總論』. 台林出版社, 1983.
- 成慶麟. 『韓國音樂論攷』. 同和出版公社, 1976.
- 손태룡. 『한국음악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2007.
- 宋芳松. 『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 『악학궤범(樂學軌範)』, 권1, <팔음도설(八音圖說)> 條.
- 양종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악의 변천과 방향.” 『음악교육공학』 11(2010).
- 오용록. “국악곡과 국악기의 분류.” 『국악교육』 7(1989).
- 유 신. 『國樂概論』. 부산, 1970.
- 유 신. 『國樂通論: 樂曲의 體系化』. 세광출판사, 1982.
- 李輔亨. “韓國傳統音樂資料의 十進分類方法論.” 『문화재』 9(1975).
- 李昌培. 『韓國歌唱大系』. 弘人文化社, 1976.
- 이해구. 『신역악학궤범』. 국립음악원, 2000.
- 李惠求. 『韓國音樂研究』. 國民音樂研究會, 1957.
- 日本圖書館協會. 『日本十進分類法』 新訂 9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95.
- 張師勛. 『國樂總論』. 世光音樂出版社, 1988.
- 張師勛·韓萬榮. 『國樂概論』. 서울大學校出版部, 1975.
- 中國圖書館分類法編輯委員會 編. 『中國圖書館分類法』 第4版. 北京: 北京圖書

館出版社, 1999.

한경신. “한국음악자료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2호 (1998).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 제1판. 한국도서관협회, 1964.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 제2판. 한국도서관협회, 1966.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 제3판. 한국도서관협회, 1980.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한국도서관협회, 1996.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 한국도서관협회, 1997.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KDC) 제5판 발간에 관한 공청회』. 한국도서관협회, 2008.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한국도서관협회, 2009.

[Dewey, Melvil]. 1876. *A Classification and Subject Index for Cataloguing and Arranging the Books and Pamphlets of a Library*. Amherst: Mass.

Dewey, Melvil. 1885-1989.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nd-20th ed. Albany, New York: Forest Press.

Dewey, Melvil. 1996.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st ed. New York: Forest Press.